

지역 매아리

정읍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보행 중 스마트폰 자제 당부

정읍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행 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보행자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는 경우 각종 사고에 노출되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높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사용자 개개인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1.6배 증가했다. 또 보행 교통사고의 61.7%가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걸을 때(운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이다.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소리로 인지하는 거리가 평소 보다 40%~50% 줄어들고 시야 폭은 56%가 감소되며, 전방 주시율은 15% 정도로 떨어진다고 한다.

평상시에는 차량이 보이기 전에 소리로 먼저 인지하고 시선이 차량을 찾아 움직이는 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소리를 알아채지 못하고 스마트폰 화면과 전방을 번갈아 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중이거나 횡단보도 등 일정 구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을 제정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걸거나 운전 중에는 스마트폰을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바르게살기운동부안군협의회
불법 주정차 안하기 캠페인 펼쳐

바르게살기운동부안군협의회(회장 채옥경)는 불법 주정차 안하기 캠페인을 4일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쳤다.

바르게살기운동부안군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부안예술회관 앞에서 시작해 아담사거리, 부안터미널 사거리, 부안 읍사무소 등에서 전개했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운전자에게는 부채를 제공하는 등 계도활동을 전개했다. 채옥경 부안군 협의회장은 "부안을 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 수준 높은 선진 교통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캠페인 행사에 참여한 권익현 부안군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힘쓰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감사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장, 읍면동 초도방문

9일부터 20일까지 지역 현안 사항 파악 등

유진섭 정읍시장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 초도방문을 실시한다. 시는 "민선 7기 출범을 맞이해 23개 읍면동 지역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수성동을 시작으로 초도방문을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읍면동 기관·단체장 및 이·통장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며, 민선 7기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직접 행기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초도방문에 나선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대민 친절도 향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민선7기 시정 목표를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으로, 5대 시정방침으로 ▲폭력없는 안전행복도시 ▲살맛나는 첨단경제도시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스마트한 농·생명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정읍 출신 경제계 인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정읍경



유진섭 정읍시장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3개 읍면동 지역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수성동을 시작으로 초도방문을 갖는다.

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생과 대화합의 큰 정치를 통해 직면한 정읍의 위기를 돌파하는 물론 변화와 혁신으로 정읍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다짐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박진도 지역재단 국민총행복전환포럼 MOU 체결

유기상 군수, '군민행복시대' 변화의 첫걸음

민선 7기가 출범하고 외부단체와 가진 고창군(군수 유기상)의 첫 번째 접촉은 역시 군민행복이었다. 4일 유기상 고창군수는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과 함께 국민총행복전환포럼(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업무협약(MOU)을 맺고 '군민행복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유 군수는 취임식에서도 밝혔던 민선 7기의 시대정신은 변화와 희망, 통합으로 그 바탕에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깔려있다.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은 그 동안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인 경제성장 즉 국내총생산(GDP)의 신화에서 탈피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국민총행복(GNH)으로 전환하자는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고창군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국민총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실질 생활공간인 지방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적 경제성장이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아픈 경험에서 오는 교훈을 반면교사로 하여 성장주의를 지양하고 각종

정책추진에는 주민행복이 최우선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관주도가 아닌 민관이 함께 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많은 지자체가 함께 하고 있어 향후에는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유기상 군수는 "모든 국민은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 실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는 시원적인 명제 '군민행복시대'를 열기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2018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군은 재난 위기 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매뉴얼을 개선한 것은 물론 운영 관리 노력과 함께 재난관리 프로세스, 안전관리체계 등에 대한 중

합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 및 포상금(1500만원)과 특별교부세(3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깊이 인식하고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개인·부서·관계망·기관 역량에 대해 지표로 평가)을 진단·개선하고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시재생 시민포럼 2018' 개최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전북과학대,13일 정읍시립 중앙도서관서

최소한 원도심을 살리고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이 열린다.

정읍시와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전북과학대학교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시민포럼 2018'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정읍시립 중앙도서관 1층 소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 주제는 '미래를 위한 선택&시민경제도시'이다. 포럼은 오후로 두 번째를 맞는다.

포럼의 좌장은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맡는다.

주제 발표에서는 정읍시립대학교 수가 '도시재생에서 지방창생으로'를, 최정환 공간문화센터 대표가 '문화가 숨쉬는 도시', 이광서 아이부키대표가

'맞춤형 사회주택을 통한 지역 자산화와 도시재생'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주제 발표자 외에도 김한수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참여하여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 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시재생의 목표와 정읍의 미래를 위한 선택과 방향에 대해 토론을 갖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지역단체 협업을 통한 상생기반 구축과 함께 지역 내 전통산업, 문화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시재생 시민포럼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이 지난 3일 부안을 주공1차아파트 단지 및 부안터미널 일대에서 고독사 없는 부안 만들기 캠페인을 가졌다.

"좋은 이웃이 사는 좋은 마을 만들어요"

부안군, 고독사 없는 부안 만들기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자살 및 고독사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부안군이 지난 3일 오후 4시 부안을 주공1차아파트 단지 및 부안터미널 일대에서 고독사 없는 부안 만들기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은 부안군 희망복지지원단, 부안을 맞춤형 복지팀,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힘을 모아 자살 및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 '함께 웃길'을 결성해 추진했다.

캠페인은 주공1차아파트에서 이웃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한 주민참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상담소를 운영했으며 부안터미널 사거리 일대에서 고독사 예방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 '함께 웃길'은 이번 캠페인을 신호탄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대상자들의 고립을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을 이끌어 정신건강 증진 상담 및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부안군 김형원 주민행복지원실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면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길 기대한다"며 "우리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좋은 이웃이 사는 좋은 마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